

## 범위결정과 핵심질문

### 1 범위 결정

Population Adult with frequent and/or moderate-to-severe episodic migraine

Intervention Drug

- Anti-epileptic drug
- Beta blocker/CCB/ARB/ACE
- Anti-Depressant

Professional Primary care physician, Nurse, and healthcare professionals

Outcome The frequency of migraine prevention drug prescription as suggested

Healthcare setting Primary care setting in Korea

## 2 Key Questions

1. Episodic migraine환자에서 예방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두통빈도, 두통강도, 환자의 선호도, ADL에 대한 영향 등)은 무엇인가?
2. 예방치료를 진행중인 episodic migraine환자에서 치료의 중단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3. Episodic migraine환자에서 예방치료로 베타차단제(beta blocker; propranolol 등)를 사용하는 것이 타약제, 위약 또는 치료하지 않는 것에 비해 두통의 완화에 효과적인가?
4. Episodic migraine환자에서 예방치료로 칼슘채널차단제(calcium channel blocker; flunarizine 등)를 사용하는 것이 타약제, 위약 또는 치료하지 않는 것에 비해 두통의 완화에 효과적인가?
5. Episodic migraine환자에서 예방치료로 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나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angiotensin receptor blocker; candesartan 등)를 사용하는 것이 타약제, 위약 또는 치료하지 않는 것에 비해 두통의 완화에 효과적인가?
6. Episodic migraine환자에서 예방치료로 항우울제(anti-depressant; amitryptiline 등)를 사용하는 것이 타약제, 위약 또는 치료하지 않는 것에 비해 두통의 완화에 효과적인가?
7. Episodic migraine환자에서 예방치료로 항경련제(anti-epileptic agent; divalproex sodium, sodium valproate, topiramate 등)를 사용하는 것이 타약제, 위약 또는 치료하지 않는 것에 비해 두통의 완화에 효과적인가?